

양캠 학자, 강경투쟁으로 선회

서울, 5월 학내·외 투쟁 조화롭게 진행해야
용인, 학자추 조직강화로 장기발전 수립해야



서울캠퍼스는 식당가게인상반대투쟁의 열기를 학자의 핵심사인으로 묶는 것이 필요했다.

양캠퍼스 학원지주와 투쟁은 지금까지 별 전전없이 진행돼 오던 동국대투쟁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투쟁(동투)과 관련된 공대위와 별도로 대학남과 합성까지 진행됐던 서울캠퍼스는 지금까지의 동투가 단순한 동국대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중

비상학생총회를 상정,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나서는 문제로 학생회 단위의 기존 조직력이 약화된 총학생회가 5월을 맞아 사외적으로 민간인 문제들에 대한 5월 투쟁과 학내상황을 어떻게 조절하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지금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은 집회와 같은 학생들의 힘으로 어떻게 핵심사인으로 도출 것인가 등의 내용이 이번 학자추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로 보여진다.

○동국대투쟁을 발전시킬 이 진행했던 용인캠퍼스는 4월 초 공적으로 비어있던 학자추국이 추진위원회(학자추)가 개편된 후부터 4·5월 학자와 관련된 정책안이 생산되기 시작됐다.

그런 학자추는 교통문제 해

세민전, 오는 25일(수) 막을릴 예정

학생측, 자주교류 서신 범청학련에 발송
학교측 예산지원 없어 어려움 계속

‘인류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94 세계인속예술평론(세민전)’이 행사장소, 규모, 예산 등의 문제로 대학당국과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없이 학생회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세민전은 그간 예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민전 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수) 학생지도 세민전 행사 기획안을 제출하고 대학 당국의 답신을 요구했다.

이해 대학당국은 학생자치장 명의로 된 공문을 통해 △수입 결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 장소의 일원화 △공공기관인

도한 총학생회는 세민전에 대한 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고 11개 요구안에 세민전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학원의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포함시켰다.

세민전 자주교류 ‘인류평화와 남북교류를 위한 94 세민전’과 관련하여 북한학생들을 초청하고 방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지난 4월 12일(화)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 공동사무국으로 발송했다.

이 서신에는 “국민권을 지키고 95년 조국통일을 예견하는 자주적인 자주교류 사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후 조선헌학회와의 협의와 서신할 때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학생회는 또 지난 8월(월)까지 학생들이 북한 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수거, 교환하기 위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송여부는 아직 불확실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민전 준비위는 지난

4월 28일(목) 통일원에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접수시켰다. 접수서류에는 김민권 부총장의 협조문과 노영환 교수의 소견서도 첨부됐다.

준비위원회 박상현(사학·폴란드) 4급은 “이번 초창기인

이 무렵인 경우에는 2학기 세민전 준비회의 방북학생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지속적인 교류사업의지를 밝혔다.

세민전 전소·일시 ‘인류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94세민전예술평론(세민전)’이 오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서울캠퍼스 예술관

에서 오는 31일(월)부터 이틀간 열린다. 그러나 전시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민전에는 세계 20개

전 구성원의 대생협건설 논의 난항

학사제적생 조합장의 자격여부 시비

교수·직원·학생 등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생협(대협) 건설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조합장의 지체시비로 활동이 중단됐다.

이해 조합장인 김성호(문학·대학 4, 4계) 군이 지난 3월말 학사제적생으로 확정되지 않은 대협당국에 집권을 조합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을 시켰다.

지난 4월 12일(화) 3차 대협(전) 회의 당시 제기된 이 문제는 대협당국의 전구성원 인정과 대협협회의 정장사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협(전)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지주 강아보에게 김을수 주임은 “학자를 떠난 제적생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대협

정관에 제시된 학내생활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성호(문학·대학 4) 군은 “학사제적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구시대적 학벌”이라며 “조합장은 정장사관장으로서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19일(수) 열리는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이후 대협(전) 공식인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한 현 대협(전)의 정장을 살펴보면 제 8조 5항과 6항에 “대협(전) 회원은 학내생활지에 규정하고 학내생활지의 구체적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 이사회 구성원들이 학생대표들과 대협(전) 직원들이 구성된 점을 살펴볼때 정관대로 해석하면 현 조합장의 조

합원 자격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학교측의 “조합장은 조합의 내부적 활동에 전념하고 대협(전) 회의등의 외부적 활동에는 부조합장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대협(전) 조합원총회에서 어떻게 수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과 대협협회는 작년의 대협(전) 자치권을 둘러싼 마찰 이후 지난 2월 14일 “대협(전)은 학사제적 문제를 해결한 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협(전) 창립을 위해 순조로운 협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문제로 3차 대협(전) 회의에서 인건으로 상정된 △복직장학금 지급 △학생활동 보조금 활용 방안 △직영매장 시설 위임 운영서 제정 등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 식대를 일괄적으로 1백만원

을 올렸다. 이에 반발한 총학생회는 도시락을 주문·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이다. 이

와 관련, 총학생회의 한 간부는 “식당가게인상은 학생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타협할 때가 지

도한 이번 식대인상문제와 관련된 총학생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락 판매 도중 도시락 배달자를 막는 직원과 학생들

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식대의 상과 관련한 학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

이다. 그러나 지난 22일(금) 열린 제8차 교섭에서는 7차 교섭과

노조, 쟁의 활동에 돌입할 듯

학교측, 성실한 자세로 단협에 임해야

‘94 단협협약이 노동조합(노조)에서 지난 4월26일(화) 조

동부에 노동쟁의발생을 신호할 때 따라 단협협약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18일(월)인 평안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단협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준장은 “개학과 화합을 이루는데 노조는 중립자책

임장에서는 많은 협조를 해왔던”라며 제8차 단협교섭에서의 대안제시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22일(금) 열린 제8차 교섭에서는 7차 교섭과

는 달리 대학당국의 대안제시도 없이 진행된 별다른 전전없이 끝났으며 이에 노조는 쟁의 발생시기를 했다.

지난 29일(금) 중앙노동위원회 1차 알선술을 거친 노조는 지난 5월4일(수) 조장을 거쳐 31개 조항 중 14개 주요쟁점사

안을 논쟁 끝에 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10월(월) 서울 용인 빌로 각각 총회를 통해 노동쟁의위원회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실행할 것으로 보고 학내 갈등은 깊어질

것을 전망했다.

노조는 오는 10월(월) 서울 용인 빌로 각각 총회를 통해 노동쟁의위원회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실행할 것으로 보고 학내 갈등은 깊어질

것을 전망했다.

노조는 오는 10월(월) 서울 용인 빌로 각각 총회를 통해 노동쟁의위원회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실행할 것으로 보고 학내 갈등은 깊어질

것을 전망했다.

노조는 오는 10월(월) 서울 용인 빌로 각각 총회를 통해 노동쟁의위원회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실행할 것으로 보고 학내 갈등은 깊어질

것을 전망했다.

노조는 오는 10월(월) 서울 용인 빌로 각각 총회를 통해 노동쟁의위원회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실행할 것으로 보고 학내 갈등은 깊어질

것을 전망했다.

노조는 오는 10월(월) 서울 용인 빌로 각각 총회를 통해 노동쟁의위원회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실행할 것으로 보고 학내 갈등은 깊어질

것을 전망했다.

노조는 오는 10월(월) 서울 용인 빌로 각각 총회를 통해 노동쟁의위원회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실행할 것으로 보고 학내 갈등은 깊어질

것을 전망했다.

노조는 오는 10월(월) 서울 용인 빌로 각각 총회를 통해 노동쟁의위원회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실행할 것으로 보고 학내 갈등은 깊어질

것을 전망했다.

노조는 오는 10월(월) 서울 용인 빌로 각각 총회를 통해 노동쟁의위원회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실행할 것으로 보고 학내 갈등은 깊어질

것을 전망했다.

노조는 오는 10월(월) 서울 용인 빌로 각각 총회를 통해 노동쟁의위원회를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실행할 것으로 보고 학내 갈등은 깊어질

미, 지역적 균형자 자처 역탈냉전적 시각 함유



탈냉전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어떤 면에서 역탈냉전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가.

탈냉전시대 미국의 안보전략

소련 해체와 독일통일을 기점으로 국제정치는 탈냉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45년간 지속해 왔던 미국의 대소냉전정책은 양극의 한 축인 소련이 무너짐으로 인해 미국안보전략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1992년 3월 8일 뉴클리어즈에 공개된 미국방부의 '국방계획지침(Defense Planning Guidance)' 초안은 탈냉전시대 미국안보전략의 주요내용의 일부를 언급하고 있다. "가장 정치·군사적 긴장을 전방에서 하거나 우리의 지도력으로 도전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항하기 위한 코르를 충분히 해야만 하며, 세계적 역할 또는 지역적 역할을 도모하려는 잠재적 경쟁자를 억제시키기 위한 기제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 문서는 양극체제 이후 다극체제로의 전환과 냉전시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강조하며, 냉전시대에 서도 미국의 전략적인 개입을 옹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탈냉전시대 미국안보전략의 기본축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통제정책(Containment)을 대체한 지역적 균형자(Regional Balancer)로서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역적 균형자 역할은 과거 냉전정책의 경우처럼 전세계에 걸쳐 소련에 대한 미국의 도전과 유권이라는 입장에서 갖고 있던 것임은, 세계 주요지역에 잠재해 있는 갈등과 불안정 및 불확실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지역적 균형자 역할 추구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 전개되고 있다. 첫째, 동맹국들에게 안보비용으로서의 평화보장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냉전체제에서 안보우산의 무임승차로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독일, 일본 등에 대해 미국은 책임분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둘째, 양극체제와 비대칭적 지역분쟁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핵무기를 포함한 집단방위 및 평화화무기의 제3세계로의 이전 및 생산은 지역적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군사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축소하고 있다. 해외미군지의 군사력 주둔을 감소시키면서도 긴급상황의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부대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에서 동아시아의 위상

탈냉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불확실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비축소는 이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적·외적 갈등과 동소냉전 후 세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또한 경제강대국인 일본과의 무역마찰,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지위강화 움직임으로 일각의 긴장요소도 있다고 본다.

동아시아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의 확보와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맞물려 있는 곳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경제 규모는 서유럽경제규모와 필적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1989년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GNP규모는 436611억달러 대 431117억달러, 1979년과 1989년 대비 GNP성장률은 23.7% 대 63.6%), 미국과의 무역량이 서유럽을 능가하고 있다. 정치·군사적인 측면에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은 향후 국제질서에 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이 있으며, 미국이 잠재적인 비이성적 행위자로 상정하고 있는 북한이 있다. 90~93년 이 지역 국가들의 군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본 38.2%, 중국 20.6%, 대만 20.3%,

한국의 지역적 균형자 역할 추구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 전개되고 있다. 첫째, 동맹국들에게 안보비용으로서의 평화보장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냉전체제에서 안보우산의 무임승차로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독일, 일본 등에 대해 미국은 책임분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둘째, 양극체제와 비대칭적 지역분쟁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핵무기를 포함한 집단방위 및 평화화무기의 제3세계로의 이전 및 생산은 지역적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군사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축소하고 있다. 해외미군지의 군사력 주둔을 감소시키면서도 긴급상황의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부대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불확실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비축소는 이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적·외적 갈등과 동소냉전 후 세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불확실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비축소는 이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적·외적 갈등과 동소냉전 후 세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불확실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비축소는 이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적·외적 갈등과 동소냉전 후 세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한국의 지역적 균형자 역할 추구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 전개되고 있다. 첫째, 동맹국들에게 안보비용으로서의 평화보장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냉전체제에서 안보우산의 무임승차로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본 독일, 일본 등에 대해 미국은 책임분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둘째, 양극체제와 비대칭적 지역분쟁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핵무기를 포함한 집단방위 및 평화화무기의 제3세계로의 이전 및 생산은 지역적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군사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축소하고 있다. 해외미군지의 군사력 주둔을 감소시키면서도 긴급상황의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부대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불확실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비축소는 이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적·외적 갈등과 동소냉전 후 세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불확실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비축소는 이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적·외적 갈등과 동소냉전 후 세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불확실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비축소는 이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적·외적 갈등과 동소냉전 후 세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불확실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비축소는 이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적·외적 갈등과 동소냉전 후 세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안보개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오고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주변미군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용분담의 확대를 유도하며 해외주둔기지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다.

제3세계에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생산 및 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제3세계 전략은 북한에게도 적용된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미국은 유일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며 협상을 통해 핵무기 확산의 보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통해 얻는 효과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주변열강 특히 중국과 일본의 권력에서 지역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지혜에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경제강국인 일본의 정치·군사적 지위강화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제3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가능한 한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미국산 물자의 판매를 장려하기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국으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판매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력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별 미사일 방어체제인 '전역미사일 방어체제'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있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불확실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비축소는 이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적·외적 갈등과 동소냉전 후 세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불확실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비축소는 이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적·외적 갈등과 동소냉전 후 세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불확실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비축소는 이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적·외적 갈등과 동소냉전 후 세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탈냉전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아시아를 불확실성과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비축소는 이 지역에 위협으로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는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내적·외적 갈등과 동소냉전 후 세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본다.

한미간 체결한 조약·협정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정



남한 내 핵주권은 미국 손에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위한 협정(원자력 협정)은 1956년 2월 3일 서명되고 두 차례 개정되었다.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위한 협정(원자력 협정)은 1972년 11월 24일 워싱턴에서 서명되어 1973년 3월 19일 발효(조약 제474조)였다. 발효 이후 41년간 효력을 갖기로 한 이 협정은 84년 7월 1일 개정(조약 제503조)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원자력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남한의 원자력이 거의 미국에서 이양된 실정이고 보면 원자력 협정은 한미간 남한에 있는 모든 원자력 관련 물건의 운송법이다. 원자력 협정은 남한내의 핵주권과 관련된 내정간섭 여지까지 있어 심각한 불평등 조약의 성격은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행정협정' 등 다 협정보다 여론화가 인지도 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지금 남한의 핵문제도 한민 눈을 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두 15조로 구성된 협정의 내용 중에서 이 협정의 정의를 알 수 있는 몇 부분만 살펴본다.

제8조 F항을 보면 한 협정의 목적은 공급되거나 또는 대차한 원자력이나 핵연료 원자력 물건의 인도와 관련된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와 결사적으로 한 두 물건의 안전 취급과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소유권, 대위, 점유 및 사용으로 전적으로 미의 배하한 원자력으로 인한 일부 또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제3자 손해배상 책임인 포함)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미합중국 정부에 소환하고 미합중국 정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에 있는 핵물질을 손상시키나 사고난 경우 남한 정부는 미국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제11조 B항은 남한에 있는 핵물건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다. 미국은 '원자력의 설계 및 원전의 안전조치의 효과적 적용에 관련된다고 결정하는 기타 장비와 장치의 설계에 검토하는 권리를 가지고 남한에 제공된 원자력 제품들에 대하여 스가동기기의 유지 및 작성을 요청하는 권리와 동 물건의 대한 책임의 보장을 지닌 핵연료 물체로 보고서도 요청하고 접수하는 권리 스대한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등 물건의 본조에 규정된 모든 안전조치와 제10조에 언급된 보장조치에 따르도록 한 것을 요구하는 한 스추출물질을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가 지정하는 지정시설에 저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스대한국 정부와 협의한 후, 임방물자(미국)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지정하는 인원을 동반하여 본방의 운수(수송)를 책임지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독점적으로 독점할 수 있도록 또한 원자력법 또는 조약과 지령에 정한대로 되는 인원을 지정하는 권리 스국정을 준수할 경우 원자력을 저장시키거나 또는 동요시키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제품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 등 본질적으로 남한 핵에 대한 모든 사용상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핵무기에 미국에 있는 것 말고도 원자력 물건의 안전을 사할만 하는 명목으로 남한의 모든 장소와 지령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남한에 대한 미국 정체의 명백한 실례이다. 북한에 대한 핵사찰 한번 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협상이 오가는 것과, 1년에 약 3백회에 걸쳐 크고 작은 핵사찰을 받고 있는 남한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정지혜 기자>

글·심·는·순·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1.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2.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3.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4. 한시위 북한사회주의의 생존전략과 남북통일
5. 총괄: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정세

이 준 영

<외대대학원 북미지역학과 졸업>

개척자 외대인 3

이 글은 외대 개교 40주년을 맞아 동문선배와 재학생간의 지상대담을 위해 외대신문과 개교 40주년 기념사예를 함께 기획, 제작한 것입니다.

언론의 땅에 소명의식을 심고

제학중에 개교 30주년을 맞았는데 그세 10년 성장이 흘렀다. 그 10년은 외대의 역사에서 '청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이 기간 동안 청년외대는 뒤를 잇는 시대상황과 도도한 민족사의 흐름 한반도에 자리했다. 때로는 작은 몸짓으로 때로는 국내외를 강타한 급작한 뉴스로 시대의 아픔과 민족의 숙원성취를 위해 몸부림쳤던 외대의 모습은 소중한 역사의 앨범에 장식되었다.

그 진풍경에 외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실천하는 작은 지성이 되고자했던 나는 이제 어엿살배기 '외대출신'언론인이 되어 새로운 시대적 격랑과 맞닥뜨리고 있다. 결코 역사의 갈피장에 묻어두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인간·사회·민족에 대한 애정과 실천의 문체는 외대개 물려준 자랑없는 자결이다.

수많은 지성이 혼돈과 암조모색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 특수한 시기에 언론이 말아야 할 몫의 크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론현실은 여전히 사회적·민족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걸을 부끄럽게 여기며 변화되지 않은 언론계 풍토에 새바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다듬는다. 그 새바람을 실천하는 데는 의지와 신념, 올바른 사상에 더 보태서 '실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새삼 절감한다. 재학 시절에는 미처 불기조차 없었던 모교의 역량과 가능성을 나는 사회에 나와서 새로이 보고 있다.

외 대 학 보 개교 40주년 기념사예

정 회 상

1983.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3.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3.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3.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3.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3.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3.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3.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3.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3.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4.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4.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4.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4.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4.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4.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4.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4.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4.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4.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4.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4.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5.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5.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5.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5.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5.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5.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5.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5.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5.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5.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5.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5.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6.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6.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6.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6.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6.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6.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6.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6.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6.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6.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6.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6.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7.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7.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7.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7.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7.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7.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7.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7.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7.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7.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7.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7.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8.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8.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8.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8.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8.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8.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8.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8.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8.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8.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8.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8.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9.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9.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9.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9.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9.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9.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9.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9.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9.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9.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9.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89.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0.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0.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0.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0.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0.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0.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0.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0.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0.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0.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0.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0.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1.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1.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1.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1.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1.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1.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1.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1.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1.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1.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2.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2.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2.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2.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2.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2.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2.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2.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2.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2.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2.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2.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3.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3.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3.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3.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3.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3.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3.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3.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3.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3.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3.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3.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4.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4.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4.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4.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4.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4.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4.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4.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4.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4.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4.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4.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5.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5.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5.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5.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5.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5.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5.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5.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5.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5.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5.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5.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6.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6.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6.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6.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6.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6.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6.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6.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6.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6.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6.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6.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7.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7.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7.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7.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7.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7.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7.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7.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7.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7.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7.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7.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8.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8.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8.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8.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8.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8.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8.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8.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8.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8.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8.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8.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9.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9.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9.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9.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9.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9.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9.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9.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9.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9.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9.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1999.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0.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0.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0.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0.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0.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0.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0.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0.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0.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0.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0.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0.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1.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1.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1.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1.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1.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1.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1.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1.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1.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1.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2.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2.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2.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2.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2.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2.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2.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2.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2.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2.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2.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2.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3.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3.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3.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3.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3.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3.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3.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3.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3.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3.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3.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3.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4.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4.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4.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4.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4.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4.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4.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4.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4.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4.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4.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4.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5.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5.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5.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5.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5.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5.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5.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5.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5.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5.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5.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5.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6.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6.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6.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6.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6.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6.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6.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6.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6.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6.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6.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6.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7.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7.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7.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7.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7.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7.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7.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7.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7.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7.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7.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7.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8.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8.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8.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8.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8.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8.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8.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8.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8.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8.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8.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8.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9.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9.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9.3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9.4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9.5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9.6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9.7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9.8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9.9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9.10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9.11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09.12 외대 재학생 40주년 기념사예
2010.1 외대



36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 10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행사는 두 장소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각각 따로 진행됐다.

한국노동의 역사를 통해 본 민주노동 건설 의미

노동처럼 다가오는 민주노동건설



노동악법 철폐·임투 승리·민주노동 건설. 소망을 담은 머리띠가 노동자들을 들쭉거리고 있다.

왜 민주노동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자계급은 어떤 존재인가?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생활의 가장 큰 억압의 대상인 존재 민중의 대변인 수 밖에 없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한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노동자계급을 그 사회에서 가장 압도적인 다수로 성장시킨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조직을 건설하고 그 조직에서의 훈련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 민주적으로 훈련된 노동자의 압도적 다수의 운동,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운명이며, 노동자계급은 바로 그 운명의 실체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계급이 어떤 존재인지 새삼스런 질문을 던지기 않을 수 없다. "왜 노동자계급은 어떤 존재인가?" 지난 '한겨레 21'에서 패배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들의 지부는 민주주의의 조직이자 민중의 주체라고 알고 있었던 노동자들에게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켰다. 8만만인 카리 콜트를 휘두르고, 2만여 개의 외계 카메라를 수집할 수 있는, 여유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흔히 그들은 노동귀족이라고 지칭한다. 자본과 권력에 매수된 그들은 주 44시간의 정규노동과 주 80시간 이상의 전일제 노동의 생계를 지탱하며, 그들의 지위는 지극히 평범한 노동자들의 운동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데에서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찾는다.

특히 위해 제재되는 반노동정책, 반민중적인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한다. 반민중, 즉 그 출생에서부터 자본의 피해에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권력과 자본이 추구하는 방향에 의해 키워졌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노총을 전면적으로 부인

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지주적인 민주노총을 건설하고자 한다.

부패와 어둠, 수치스런 한국노총의 역사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독립추진노동조합연맹(대한노총)'은 해방후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건설된 '조선노동조합전국협의회(전노협)'에 대항하기 위해 우익장세들을 중심으로 1946년 3월 10일(이날은 바로 1939년 3월 10일)에 창설된 대한노총이다. 1947년에 이르러 전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파업을 피하라는 선봉장 노릇을 하면서 반노동정책을 실행하고 그 공포로 위헌장 전진이나 초대 사회부장관으로 임명되는 등 초기부터 권력의 밀착관계가 두드러졌다. 이후 이러한 충성심은 더욱 가세되어 이윤만 대항할 3년지지를 위한 우익자세까지 발입으로써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국가사태로 접한 박정희는 국가적 위기 최후의 보루를 통해 대한노총을 해체하고 노동운동계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14개 산별노조 9만 1666인을 조합원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주장하기보다는 정부주도의 권력에 순응하는 노동자 동원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노총의 존립은 국가권력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따라서 한국노총은 권력에 요구하는 바를 알아서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의 야욕은 역사 속에서 수시로 등장한다. 역사기회의 연금술을 동원해 왔던 박정희는 사적인 이해를 추구했다.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지지를 시작으로 유신헌법을 통한 지지.

더 나아가 유신헌법을 모방한 단일 후보제(대통령 따라배우기) 등은 박정희정권하에서의 비정당한 노동자 생활과 비열한 한국노총을 함께 비교해 볼 때 더욱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난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이러한 한국노총을 용인했는가? 노동조합의 민주화투쟁은 60년대에서 오늘날까지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이었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의 개혁세력을 끌어들여 도배하고, 박정희는 권력과 동생동사(한민도 죽은 적은 없었지)

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반대는 '빨갱이', '파괴적', '사회혼란' 등으로 위장하여 자신을 보호했다. 비탄의 거세와 민주주의의 압력을 안락한 지위유지를 넘어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했다.

그것은 신념상술이었고, 언제나 떠날 수 있는 두족할 돈주머니 뿐이었다. 다만 권력의 협력자였다.

1980년 민주화의 불이 켜졌을 때 이들은 전국의 민주화 열망을 의면한 채 5·17군사쿠데타의 편에서 그들을 지지했다. 1987년 전국민

들이 독재력을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4·3호헌조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조합원을 버릴 수는 있어도 권력을 버릴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패는 겉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창민 부패한 밑바탕에서 가장 오랫동안 악취를 감추어 전민되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이라

는 진노협이 노동자들의 모금을 통해 1백만 채의 민중에게 전세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지어 버렸다. 전노협은 교

육장소가 없어서 노동자들의 돈으로 교육장소를 빌릴 때, 한국노총은 중앙교육원 건물에 1백65원에 이르는 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자세 예산의 뒷받침을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조직, 자기배의 자기 노력 없는 조직, 그것이 바로 한국노총이며 따라서 한국노총은 대미상 지출적인 노동자조직이 아니다. 그저 정부부지급금인 뿐이다.

지원은 정부에 의해서만 아니라, 한국노총 경기도 지부들은 노조가 없기에 유망한 삼성그룹이 기증한 땅에 경기도에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건설했다. 이쯤되면 자본주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자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자본과 권력의 불은 그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담배를 요구한다. 한국노총은 삼성그룹에 노조건설에 정보 제공을 제공하여 노동조합 건설 그 자체를 무력화 시킨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노동조합이 파업을 전개했을 때, 한국노총간부들이 회사측을 방패로 인정할 해수

의 돈을 받고 노조측을 설득하려고 했던 사실은 한국노총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다란 도의 관계일 뿐이다. 그 속에는 어떤 계급분화도 어떤 계급 대립도 없는 소멸된다. 그때의 한국노총과 회사측은 단지 돈, 즉 뇌물에 의한 관계일 뿐이다. 그

리하여 다시 노동귀족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가뜩이나 한국노총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한국노총은 자기 생존전략에 의해 개혁노선을 표방하고 거듭되어나갔다고 전언했다. 노동운동의 완전한 단절점을 부정(한국노총은 보수노조 급진파의 절레를 부정한다)하고,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하에 정부와 자본의 임금규제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

의 투쟁성과로 자랑하는 노동절(열한한 사람은 다아는에도 정부와 기업에 뒷받침을 위해 그 대의의 지주어 되고 있다. 여전히 한국노총은 자본의 권력이고, 권력지향적이다.)

수많은 노동자계급은 배후를 지킨다.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간 단행의 노동절에도 배후하지 않는 조직, 그것이 한국노총이었던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을 위하여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조직된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어용노총을 넘어 전노협을 건설하고 그 연대체인 전노대를 결성하고 이끄는 것이다. 민주노총운동 7년, 전노협 결성 5년의 성과는 이제 민주노총건설이라는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인식된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조직된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은 어용노총을 넘어 전노협을 건설하고 그 연대체인 전노대를 결성하고 이끄는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인식된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복수노조 금지법의 철폐, 즉 전자의 자유에 대한 공경적 시사를 내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돈·권력 추구 '노동귀족의 현장'

임투등 현안 돌파로 민주노총 건설



노총 결성 임금협약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간의 차원에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승리할 때만 노동자들은 '임투승리'의 결의를 함으로써 모았다.

□합의서 이행 투쟁에 나선 원진레이온 비상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박상봉씨 인터뷰

불치병에 실업신제...원진노동자의 선택은

—작년말 정부·산업은행 측과 부본적 합의를 이뤘다...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원진 노동자들은 복속을 건 싸움을 나갔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합의서를 이행하는 뜻...
=정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모두를 지친다. 정부측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도의 합의를 이행을 전제로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원진지업 협회와 원진, 새정총합법원 상당수 지로내 대면, 피상선 따른 원진이(원진) 노동자들의 재취업 알선과 7~8개월간의 폐업 위기로 지급의 새기 시기에 합의를 했다. 정부는 미정후 '원진노동자 정부주지급금 재취업

를 갖고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다시 시작하고자 결의했다. 이후 단서투쟁 중 계속해서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싸움을 전개했다. 4월 23일에 방정식당 앞에서 '원진레이온 합의서 이행 직접행위'를 벌였다.

—원진기계가 중국에 이전된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다. 60년이 넘는 직접행위 생산 고대되어 합의서 이행이 나뉘어있어 중국에 내역이 된다고 한다. 일본에서 수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대미상 싸움을 수 있게되고 우리나라로 넘어와 3백명이 넘는 직접행위 환자를 발생시킨 기계를 단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중국에 넘기려는 중국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원진기계 중국이전 반대투쟁'도 함께 전개해 자본가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밝히고 규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
=우리는 정부가 11·9 합의서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며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제에 해를 끼치고 중국이전 반대 투쟁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다. 오는 21일(토)에는 5월 21일 직접행위의 고통을 절지 못하고 죽은 고경지씨를 비롯 직접행위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해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완공이 사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부른 민가 나리고 보호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아무 도움 안되는 건강검진..."

"이러한 자기의 작업장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밑을 없는 사나로 볼 때 제2의 기복은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노동자건강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이 89년보다 5년간 정도 줄어든 했지만 아직까지도 평균 하루에 3백여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고 7명의 직업병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89년도 국민총생산의 1.7%인 4조 3천6백27억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의 2.1배가 넘는 것이다.

최근의 산업재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또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건설, 광업, 운수업 등 3D업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직장엔 무정형직과 노정직,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산업재해에 대한 법률상의 처벌도 완충무수해 이런 현상의 나타나는 것은 법적 개선의 신야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하루 7명 살해하는 산재왕국

열악한 작업장·저임금·장노동·치료대책 없어

실제로 보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가 형식적이고 사업주가 아무리 어리석게도 처벌받기 힘들게 보상이 불충분하고 있어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없는 것이다.

87년 노동자 총파업투쟁으로 노동자들의 민주화 의식이 고취되어 산업안전 문제와 사회적으로 제기된 1992년 '직업병예방 기준 개정 투쟁'을 비롯해 88년부터 지금까지 정쟁 등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요구가 끊임 없이 전개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완공이 사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부른 민가 나리고 보호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아무 도움 안되는 건강검진..."

"이러한 자기의 작업장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밑을 없는 사나로 볼 때 제2의 기복은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노동자건강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이 89년보다 5년간 정도 줄어든 했지만 아직까지도 평균 하루에 3백여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고 7명의 직업병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89년도 국민총생산의 1.7%인 4조 3천6백27억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의 2.1배가 넘는 것이다.

최근의 산업재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또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건설, 광업, 운수업 등 3D업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직장엔 무정형직과 노정직,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산업재해에 대한 법률상의 처벌도 완충무수해 이런 현상의 나타나는 것은 법적 개선의 신야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해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완공이 사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부른 민가 나리고 보호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아무 도움 안되는 건강검진..."

"이러한 자기의 작업장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밑을 없는 사나로 볼 때 제2의 기복은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노동자건강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이 89년보다 5년간 정도 줄어든 했지만 아직까지도 평균 하루에 3백여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고 7명의 직업병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89년도 국민총생산의 1.7%인 4조 3천6백27억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의 2.1배가 넘는 것이다.

최근의 산업재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또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건설, 광업, 운수업 등 3D업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직장엔 무정형직과 노정직,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산업재해에 대한 법률상의 처벌도 완충무수해 이런 현상의 나타나는 것은 법적 개선의 신야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해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완공이 사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부른 민가 나리고 보호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아무 도움 안되는 건강검진..."

"이러한 자기의 작업장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밑을 없는 사나로 볼 때 제2의 기복은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노동자건강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이 89년보다 5년간 정도 줄어든 했지만 아직까지도 평균 하루에 3백여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고 7명의 직업병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89년도 국민총생산의 1.7%인 4조 3천6백27억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의 2.1배가 넘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가 형식적이고 사업주가 아무리 어리석게도 처벌받기 힘들게 보상이 불충분하고 있어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없는 것이다.

87년 노동자 총파업투쟁으로 노동자들의 민주화 의식이 고취되어 산업안전 문제와 사회적으로 제기된 1992년 '직업병예방 기준 개정 투쟁'을 비롯해 88년부터 지금까지 정쟁 등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요구가 끊임 없이 전개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완공이 사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부른 민가 나리고 보호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아무 도움 안되는 건강검진..."

"이러한 자기의 작업장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밑을 없는 사나로 볼 때 제2의 기복은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노동자건강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이 89년보다 5년간 정도 줄어든 했지만 아직까지도 평균 하루에 3백여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고 7명의 직업병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89년도 국민총생산의 1.7%인 4조 3천6백27억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의 2.1배가 넘는 것이다.

최근의 산업재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또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건설, 광업, 운수업 등 3D업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직장엔 무정형직과 노정직,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산업재해에 대한 법률상의 처벌도 완충무수해 이런 현상의 나타나는 것은 법적 개선의 신야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해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완공이 사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부른 민가 나리고 보호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아무 도움 안되는 건강검진..."

"이러한 자기의 작업장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밑을 없는 사나로 볼 때 제2의 기복은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노동자건강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이 89년보다 5년간 정도 줄어든 했지만 아직까지도 평균 하루에 3백여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고 7명의 직업병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89년도 국민총생산의 1.7%인 4조 3천6백27억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의 2.1배가 넘는 것이다.

최근의 산업재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또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건설, 광업, 운수업 등 3D업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직장엔 무정형직과 노정직,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산업재해에 대한 법률상의 처벌도 완충무수해 이런 현상의 나타나는 것은 법적 개선의 신야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해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완공이 사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부른 민가 나리고 보호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아무 도움 안되는 건강검진..."

"이러한 자기의 작업장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밑을 없는 사나로 볼 때 제2의 기복은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노동자건강연구회의 보고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이 89년보다 5년간 정도 줄어든 했지만 아직까지도 평균 하루에 3백여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고 7명의 직업병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는 89년도 국민총생산의 1.7%인 4조 3천6백27억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의 2.1배가 넘는 것이다.

최근의 산업재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또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건설, 광업, 운수업 등 3D업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직장엔 무정형직과 노정직,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산업재해에 대한 법률상의 처벌도 완충무수해 이런 현상의 나타나는 것은 법적 개선의 신야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사취부>



4339

정 홍 택
<역어과 57. (주)문화생산회장>

정 홍택

<영아과 57, (주)문화생산회장>

을 작성해야 한다.
세로 시리아는 가로로 낮게,
맨체, 일반 다른 대학과 유사한 마스터 플랜은 공통점도 불구하고, 반드시 외국적인 마스터 플랜이 아닌 한, 좋은 실은, 잘하는 못하는 대학의 수백에 없다.
스를 통합해야 한다. 이이다. 캠퍼스를 통합해대로 지속한다. 자국 캠퍼스는 자국들, 섹터들 통합하는 것이 좋다. 좋은 습치 않다. 오히려 각국 대학들의 외대내 연수를 부대시설로 이용한다. 캠퍼스 통합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출판물과 제휴한 외국의 대학을 인정토록 한다.
이) 단과대학(college of American English)을 신설해 소나리 하면 현재 대학

에는 양강집으로 영어교
과 재학생이 41명이며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에는 영국교인이 또는 미국
과대인이 취직하거나 있는
이름에, 생식구 내에서
생이론 외적구으로 하
생식으로 된것은 2개
않을 경우 졸업은 시
이후에, 장강구 제
대인 이학이론 최소한
전환생이 입학하여 다
들어야 한다. 불가능한
힘들므로 가능하다. 본
보라 / 불가능한 것은
이 40년전의 외대이다.
서는 외대인은 가
미국으로 교수
격으로 기꺼이하 한
은 교수를 존칭하는 것
보다 지금도 현실은
교수가 외대에서 가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물론 1백도의 열을 가
러나 사라는 의지가 없
다면 일어섰다는 확실
이 않는다.

영이와
가 버리는
정 많이
정 펼친 단
는 하와 학
회와 중
미스터지
이아 한다.
경한다. 외
상이, 또는
제도를 만
갈지만 신하
포함광대들
으로 만든 것
문제에 관해
제도를 파
내외국이 좋
조상이다.
가가 훌륭한
일해도 볼
풀다. 그
있었다. 그
정신이 있어

장실에 이색적 바깥이 붙어
문, TV에 우리 충강님이
죽어 있음 충강실 문이 주요
이름이 충실함을 관음을
우리 홀산들은 충강실
나름 마음의 문까지 열리
마리고 충실한 것을 평생

금 이문밖에서는 말도 안
이 바깥까지 이는데...
이신대네들의 부당한 시대
이들은 홀산들이 하고있
가 바깥까지 그리도 아니조심
을 가진 이신대네들이 적
을 배를 먹으면서 도사만
이리고 주장하는 것은 무용.
이들은 대충도 사대를 올리면
바깥 바깥에서 이용하기도
도 있었다는 홀산들을 방해하다
비로 불공경 거래에다
차별했어?

자곡동 그린벨트 해제 가능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정·재정적으로 대개 경제규모가 제1제비에서 3층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독립적인 대안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호에서 다루기로 한다)

사업대상 중 양적 특화발전을 실행하는 데는 대표적인 예는 증권업이다. 80년대 초에 성숙한 산업군에서는 수완적인 증권업이 증권업 대상 시세를 얻어낸 공과비율을 수월할 정도로 이전한것은 양적 특화발전을 실현시켰다. (현재 성숙한 데 (대형) 증권업으로 20 제단이 있는 상태이다)

대체상 사채로 본 자금융조 이익 기술성 때문에 언급없이 제단과 대안군에서는 1970년대 합성의어 지체후 대안을 약속했던 제단에서 굶은 개적개발이익으로 제단과 이익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안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채대의 수반 논변도 편익이므로 뿐만 아니라 현재 논변도 편익(그런데)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위원회 대안용역으로 만들어진 것은 편익과 서울대응은 전변부위를 통해 계속 원형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전국화한 대안과 대안군 대상 시세에 관련된 해가 가능한 그런데도 시세도 원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다. (사태라는 그림판에 해바라기 두송이를
장미가처럼 해질기 해바라기) 사건의
경우 대항판결이 이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곧 서울로 통째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그림판트
적절 불가한 것이 아니라 대항판결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 것일지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한양대학교의 전
통을 중시, 강대시 설치 되고 예외에도
알 수 있다.

경쟁발생 수법에 있어서 연설팀을
적용 중 경쟁발생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연
세대는 대항판결에서 6월호 2건15호
까지 완공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까지
이다.

이와 반해 본고는 출범부터 5개월
실행한 경쟁발생 수법에 2년15호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원래수법의 한계 논의수준

지금까지 대항판결에서 제시한 경쟁
발생수법에 대해 간혹의해가 전해져왔다. 그
러나 이리까지 '이 발전상을 알면 경쟁
유요관으로 발의할 것인가'라는 물
어에 있어서 경쟁발생수법을 하지 못하
는 실정이다.

이 발전상에 대해 원고수법도 충분히
생생한 것이지(사하, 서울24 문은 "원
고수법에서 사립대 해결이후에 "한대
해결이후에 사립대 수법도 경쟁발생수법
수 있다"라며 "경쟁발생수법은 아직 독
적인 수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니 용

으로 동계방문을 전제로 한 발전안이
를 왕산 통풍문고와 적적곡으로 모으
고 있다고 밝힌다.

한편 이계좌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3
(수)부터 393호를 본보기로 실시한
수사 결과를 보면 자국동맹의 안일
회와 반발한, 용의의 이계좌형 특약
전건에 대한 대영 제 아메리칸(전제 34
월) 41.5%, 적원(전제 42월) 26.65
교수(전제 37월) 32.36%의 지지를
있다. (문부 4월 18일자 027호 참조)

임오년의 전황

지난 88년 한일전쟁은 본래에서
에 관계 조약상의 내용 중 「구상
의 효과적 단계를 위해」의 구상
시회의 심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
한다라는 조건이 있다. 이는 곧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구상의 강
제 이해관계로 고려되어, 구상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88년부터 제1회 임오 문제
가 급격히 악화되기 못하고 임오 신정
이래 89년부터는 양국 동맹의 발
상을 수습하기 위해 발전회로의 건
제 미인정, 외대의 내정 문제 통해
단위에서 논의가 활발해졌 수 있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것으로 보
이. 이 문제는 이제 더이상 국과 미
국은 안일 회와 발전회의 지지를
때문이다.

◀임오록 가져

다음호에는 「독립선언서」가 계속됩니

○...지난 1일(일) 전도대와 노총은 36세부터 40세인 세계노총들을 맞아 치기 따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던 데 각국을 돌리었다.

전도대 : 5.0~8.0% 인상이 웬만이나 임금급인 분해하다.

노 : 5% 요에 7천만원이 웬만이나 이 돈으로 어떻게 부채를 지니나. 형사비 더 내다라.

전도대 : 이용노후 해해하고 민주 노총 건립하다.

노 : 말도대로 권총으로 회비만 10백만원 받아내고 돈으로 매수하다.

○...대통령 아들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

1. 이배대신 돈벌이와 한다.
2. 이배대신 없게 행동과 감치아 한다.
3. 자기몸값을 20억정도는 부를 줄이와 한다.
4. 몸과 친한척 해서 절대 안된다.
5. 언론사 하나쯤은 돈으로 짓누를 배행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아들의 자격조건

주제: 침묵
올바른
여학
내용: 성폭
기자
판
때: 5월 9
곳: 학생회

■ **등문회**
 안건: 모포지
 때: 5월 9일
 곳: 시계탑 앞

◀ **중추고**

○ **이산고**

■ **초대합니**
 태극기와 박물관
 다. 관심 있는 한
 나다.
 때: 매주 목요일
 곳: 인문포럼

◀ **대**

'비밀귀환'의 물
 기자설로 주주자
 이문 학생기자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완산 학생 기자실 학생회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광고료는 받지 않
습니다. 2층 961-4183, 4152
2층 (0335) 30-4112

으시면, 이론·완산
다.

곳: 학생회관 식당
 <서석고>
 때: 5월 12일(목) 늦은 5시 30
 곳: 학생회관 강통

□수필-고 문익환 목사님 기념관 '통일의 집'을 다녀와서



늦봄 문익환목사의 자택 수유리에 마련된 기념관 '통일의 집'에서 문목사의 생전 모습과 장례식 장면을 슬라이드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불꽃 박용길씨.

전북 제주시 한라에서 전해내려오는 굵은 빗줄기를 보면서 한줄기 빗방울을 감당하던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 조국의 대지가 가슴속에서 빗줄기를 목말라 하듯, 분단된 조국에 살면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된 아름다운 세상을 갈망하는 것은 이렇듯 모든 민중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

통일의 선구자, 큰별 문익환 목사님. 조국의 하늘과 땅, 그리고 민중이 본래의 고향 받을 때 분단의 가시밭길을 거칠없이 내달리시며 청년의 심장을 울리시던 문목사님의 모습을 이제 사진속의 추억으로 밖에 대할 수 없다.

수유리 고 문익환 목사님 자택에는 목사님 생전의 뜻을 기리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그 뜻을 기릴고 이루어지라는 염원을 담아 불꽃 박용길 목사의 작은 기념관 '통일의 집'이 마련되었다.

우리 통일회 회원들이 그 뜻을 찾을 때는 가슴을 헤집는 단비가 한바탕 내린 뒤 맑게 개인 하늘이 펼쳐져서 어딘가 있었다. 우리가 '통일의 집'에 들어섰을 때 박용길 장로님은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이 '통일의 집'을 지키고 계시는 박용길 장로님은 늦봄 문익환 목사님의 오랜 벗이자 평생의 친구로 살아오신다. 우리가 외대 용인 캠퍼스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리자 '목사님 시에도 수경이 애기같이 있어'라며 목사님의 특별한 마음을 전해 주었다.

“이봐, 젊은이들 통일이 오고 있어. 돌파하는거야!”

'통일의 집'이라는 공간이 걸린 작은 기념관은 구석 한쪽 그대로의 모습에 전지만을 해놓은 소박한 곳이었다. 마루, 서재, 안방, 부엌 등 박용길 장로님께서 생활하시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시공간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전시된 대부분의 유물은 목사님께서 생전에 직접 걸어 놓으신 것이었고 그것을 사의의 빈 공간에 고인된 뒤인 이후의 새로운 추억들이 자리를 매우고 있었다.

우리가 현관에 들어섰을 때 맨처음 눈에 띈 것은 목사님이 생전에 쓰신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입니다'라는 어귀가 실린 책이었다. 이 글은 생전에 목사님께서 지방의 한 대학생에게 써주신 글인데 목사님 기념관 건립소식을 듣고 그 학생이 액자를 만들어 들고 온 것이라 한다. 액자 주변으로 많은 감사패들이 놓여 있었다. 생전에 어려운 이들과의 교분을 함께 나누시던 거룩한 뜻을 느낄 수 있었다. 감사패를 붙여 일수경일문학상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목사님께 황산 총학생회에서 드린 감사패도 있었다. 목사님은 생전에 통일을 위한 일터에서 어떤 일도 마다한 적이 없으셨다. 거창방면 상태에서 장부로부터 임정난 탄압을 받던 조국통일반대 투쟁을 이끌고 온 것이라 한다. 거창방면 상태에서 장부로부터 임정난 탄압을 받던 조국통일반대 투쟁을 이끌고 온 것이라 한다. 거창방면 상태에서 장부로부터 임정난 탄압을 받던 조국통일반대 투쟁을 이끌고 온 것이라 한다.

을 것이다. 이 가시 절조망을 걸어내는 일.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꿈이 아닐까?

목사님의 사제에는 손에 꼽을 대학도 한권이 놓여 있다. 옥중에서 연구하신 한글 풀이쓰기 방법으로 시를 옮겨 적으신 노트였다. 박용길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생전에 한글을 무척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노트의 맨 마지막에는 '장제대 열사를 생각하며 쓰신듯한 시 한편이 독특한 한글 풀이쓰기로 쓰여져 있었다.'

우리는 잠시만 그곳에서 목사님의 조국과 민중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박용길 장로님과 함께 정해시 비디오투를 보면서 목사님이 지금 우리 곁에 있음을 현실로 느낄 수 밖에 없었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고 북녘땅에까지 남겨진 목사님의 큰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결코 영원히 늦봄 문익환 목사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익환 목사님께서 생전에 한평생 271의 장일을 통해 청년학생에게 당부하신 말을 되새기 본다.

“이봐, 청년 학생들! 통일이 오고 있어! 올해는 돌파하는 거야!”

〈통일문제연구회 한겨레사랑 모임〉

대통령절의 시작

오늘부터 시작될 대통령절 행사 중 하나인 영산대(이하)에 사용될 줄을 고고 있다. 왕산화 생물의 단계를 위해 기획된 이 행사는 줄을 준비하는 과정에 사부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대들의 장을 애고했다.

〈사진부〉



□시-어머님을 맞아 쓴 두편의 시

어머니

불혹이 된

내게 어머니는

애야, 아가

모난돌이 정 맞는대이

말씀하셨다



가슴속에

못을 박는다

장 건

〈출판부 주임〉

설움과 고통, 한이 많은 땅
언제 눈을 뜨면 때가 있었으랴

내 절절한 유년시절
모든 잘못을 덮으며 용서하신
사랑의 아픔

어머니
세월은 어느새 흘러도 흘러갔지요

어머님이 그토록 난이던
노을진 뜰에서 서 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울었다 본 하늘의 끝

일상의 마음을 담으며
행복 푸른 나뭇잎처럼 살라시던 말씀

눈에 익은
어머니 모습은
평생 그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눈부신 오솔길 햇살은
언제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아귀 두었던
정직한 기도

어머니여!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같은 나의 어머니여!

조 찬 일

〈인문·사회대 교학과 주임〉

□영화평- '필라델피아'

불평등의 공룡에 맞선 휴머니즘

인류에게 있어 신의 형상과도 같은 에이즈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문제로 여겨 만큼 그 상상이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 도처에는 특히 미국에서는 큰 사회문제의 하나이며 미국에도 결코 쉽게 이겨낼 수 없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에이즈의 유행이 시작된지 10년 이 지났고 많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 일으켰지만 할리우드 영화사가 만든 에이즈 영화는 단 한편도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2천5백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필라델피아는 할리우드 영화인들의 이름을 걸고 제작기에 돌입했다.

이 영화의 감독인 조나단 데미는 90년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당초 상을 받고 '왕들의 침묵'으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5개 부문을 석권했고 이 영화의 감독이 조나단 데미라는 사실이 그저 그런 평범한 수준의 드라마인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다.

필라델피아는 에이즈 환자의 눈물겨운 투쟁 생활도 아니며 주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계몽 영화도 아니다. 감독 조나단 데미는 이 영화를 통해 결국 인간은 진화한 못났건 부유하던 가난하던 간에 누구나 평등하고 또 누구에게도 침해 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필라델피아는 에이즈 환자의 눈물겨운 투쟁 생활도 아니며 주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계몽 영화도 아니다. 감독 조나단 데미는 이 영화를 통해 결국 인간은 진화한 못났건 부유하던 가난하던 간에 누구나 평등하고 또 누구에게도 침해 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이 영화는 에이즈에 관한 과학적인 문제가 아닌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법'에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담고 있다. 극중 주인공 변호사(앤서니 워싱턴)는 '나도 혹시 동성 연애자가 아니냐는 친구 변호사의 야유에 어떻게 답한다.

"그도 인간이고 인간은 언제나 법앞에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하고 그것이 법의 정의이고 내가 할 일이다" 사생활을 지킬수 있는 제법 장면에 서 감독은 그의 영화적 재량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앤드류의 혼비백색이 유체와 정신을 흔들리는 시각 행위로 처리함으로써 그의 몸세가 길어짐을 눈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조나단 데미 보여주는 게이 이미지 또한 우리의 머리 속에 박혀있는 여장남자의 모습에 아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시작으로 보여지면서 극중 앤드류와 그의 남자 연인 사이는 전혀 추하지 않은 오히려 이해를 유발하게끔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앤드류의 죽음에 그의 어린남의 회상으로 이어지면서 관객은 그의 권리와 에이즈 환자의

사실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연민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와 이어져 리스스를 장식하는 '스트리트 오브 필라델피아'를 부르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관찬된 목소리는 극장을 나서는 관객에게 있을 수 없는 인상을 준다.

알다시피 필라델피아는 영화 아카데미에서 남우주연상 및 음악상을 수상했다. 가장 미국적인 가수라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데뷔 이후 처음 시도한 영화음악이라고는 큰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후 흥미있거나 재미를 주는 영화는 아니지만 에이즈 문제를 다룬 영화중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회의 어두운 면을 꿰뚫어 보여줌으로써 보여준 점과 무려 8kg의 감량에 하면서 에이즈 환자를 훌륭히 소화해 내리는 몸 워크스의 노력에 돋보인 작품이다.

윤 우 석

〈서울캠퍼스 동아리

영화연구회 '울림'〉

장년외대를 일구는 사람들

둥치면 살고



외 대 학 보

플러지 지면

죽는다 (?)

자그만치 한 학년이 1백20명 영어과 전체 4백80명

많이 만나고 많이 보고 많이 얘기

하지 않으면 잊혀진다.

과 운영의 가장 큰 힘은 잦은 만남이 최고의 방법이다.